

## 부활절 설교

#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누가복음 24:13~27>

부총회장 장 경 태 목사 (후나바시교회)



오늘 성경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들 중에 한 장면입니다. 배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는 낙심되어서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를 향해 가고 있는 길에서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 1. 눈이 가리워진 제자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 인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라고 합니다. 예수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생활했던 이들입니다. 매일같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생활을 했던 그들인데 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상상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설마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 하셨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삼일만에 살아나리라” (마17:23)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생각도 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계속 그가 죽었다고 하는 현실만이 그들의 온마음을 점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현실이 점령당하면 믿음도 점령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도 가리워지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 2. 눈을 열어주시는 예수님

이때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된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의 성취됨을 들려주십니다. 그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 자신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다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이 떡을 떼실때에 그들은 그때서야 “아 예수님” 하고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약해졌을 때, 문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방황할 때에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떡을 떼는 것, 즉 성찬을 나누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식탁을 나누며 예수의 사랑을 우리의 형제들과 함께 나눌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모든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던 것들이 한순간에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동안 희미하게 보이던 것들이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같이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 3.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

이제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는 부활의 주님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33절에 보면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사도와 및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라고 합니다.

그들은 “곧 그 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와 함께 하던 곳입니다. 즉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들은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낙담 속에서, 옛 장소로 돌아가려던 그들이 다시 은혜의 자리를 향하여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잃어버렸던 신도들은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의 증인되었습니다. 34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것이 신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경험한 신도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됩니다. 다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나가서 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것이 진짜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일대한기독교회에 속한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후에 삼일만에 부활하리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이 바로 옆에서 계셨음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삼일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힘이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삼일후에 일어날 부활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에게 새 생명이요, 새 희망이요, 새 비전이요, 새 힘의 날들이 오게 될줄로 믿습니다.

## 해외한인교회 교육과목회 협의회 제15차 LA대회 개최

본 총회가 가맹교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해외한인교회 교육과 목회 협의회 제15차 LA대회가 지난 2월 18일부터 21일까지 미국장로교회(PCUSA) 토렌스제일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이번 LA대회에는 총회장 양영우목사, 중간사 정수환목사를 비롯하여 KCCJ에서는 11명이 참가했다.

‘디아스포라 교회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교회의 100년이 넘는 역사와 새로운 세대로 이어질 디아스포라 교회의 현상을 점검하고, 향후 변화의 물결 속에서 디아스포라 교회가 해결해야 할 교육과 목회의 과제들을 공유했다.

이를 위해 주제강연을 맡은 옥성득교수(UCLA)가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의 역사와 미래>에 대해 강의했다. 옥교수는 디아스포라의 의미부터 미주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사, 미주 한인교회의 현실, 미주 한인교회의 미래를 전망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각 나라에서의 발제에 일본측은 중간사 정수환목사가 담당하여 일본의 재일 외국인 정책 및 KCCJ의 상황을 발제하였고 개회예배의 설교는 본 협의회 회장 조영철목사가, 아침 기도회에서는 이명충목사가 설교하였다.

이어진 조별토론에서는 △ ‘한인 디아스포라’라는 표현 △미래를 향한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역할 △한인EM(JM) 또는 다민족 EM(JM)의 미래 △해외한인교회 교육과 목회 협의회와 방향과 미래 △한인교회 내 교회학교 등을 주제로 논의하고 과제를 공유했다.

‘선언문’도 채택하였는데 참석자 일동은 “한인디아스포라교회는 기독교공동체만의 영역을 넘어서 초문화적 교회로서의 사명이 있음을 확인하고 각 지역의 문화와 사회적 차이에 따른 다양한 가운데서 서로의 공동된 필요성을 인정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하겠다”면서 “신앙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전승하기 위한 세대간의 교육사역 개발을 모색하겠다”고 다짐을 선포했다.

대회 마지막에는 정기총회를 가져 새로운 회장에 원영호목사(PCUSA)를 선출하였으며 차기 대회는 2027년2월에 일본에서 가지기로 하였다.

해외한인교회 교육과 목회 협의회는 해외 한인교회 상호 간 유대를 강화하고 모국 교회와 해외 한인교회의 교육과 목회를 위한 상호 협력 도모, 해외 한인교회의 교육과 목회를 위한 지도력, 자료 및 정보를 개발하기 위해 2년마다 세계 여러 디아스포라 교회 지역을 순회하면서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 해외한인교회 교육과목회 협의회 제 15차 LA 선언문

“제 15차 해외한인교회 교육과 목회 협의회는 2025년 2월 18일에서 21일까지 미국 LA 토렌스제일장로교회에서 ‘디아스포라 교회의 미래’라는 주제로 대회를 개최하게 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우리의 고백과 소망을 담아 다음과 같이 선언문을 발표한다.”

- 오늘날 포스트 팬데믹 시대와 다양한 문화 속에서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정체성에 대한 도전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는 다짐한다.
-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와 폭이 달라지고 있음을 직감한다.
-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는 한인 기독교공동체만의 영역을 넘어서 초문화적(Cross-Cultural) 교회로써의 사명이 있음을 확인한다.
- 본 협의회는 한인 디아스포라로 각 지역의 문화와 사회적 차이에 따른 다양성 가운데서 서로의 공동된 필요성을 인정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한다.
- 본 협의회는 신앙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전승하기 위한 세대간의 교육사역(Inter-Generational Ministry and Education) 개발을 모색한다.
- 지금까지 본 협의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본 협의회에 정신에 동의하는 공동체의 폭을 확대한다.

2025년 2월 20일

해외한인교회 교육과 목회 협의회 제 15차 LA대회 참가자 일동

### 중부지방회

## 신도 합동연수회 개최 미요시(三次)교회 이상덕 목사를 강사로

3월 20일(수)부터 21(목)까지의 일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상덕목사(三次교회)를 강사로 맞이하여 아이치(愛知) 건강 플라자에서 중부지방회의 신도 합동연수회를 개최하여 39명이 참가했다.

개회예배는 지방회장 최화식목사가 <못할 까닭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다.

강사 이상덕목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까워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제목으로 세 번의 강연을 가졌다. 5년만에 1박 2일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강연을 통해, 혼란이 지속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심을 믿고 매일을 살아가는 것의 소중함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폐회예배는 지방회 부회장 이진용목사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는 제목의말씀이 전해졌으며, 은혜 가운데 모임을 마쳤다.



## 韓日対照讃頌歌販売



韓国の新讃頌歌版です。交読文も韓日対照で掲載されています。

●B6版変型・1483ページ

●価格: 2,500円

(消費税・送料込み)

※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

## 韓日対照聖書販売



各ページの左に韓国語(改革改正訳)、右に日本語(新共同訳)が掲載されています。

●A5版変型・1760ページ、革製

●価格: 4,000円(消費税・送料込)

※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



## 관서여성회

제26회 성경세미나 개최  
~깨뜨리는 여성, 깨어나는 교회~

전국교회여성연합회(교육국)·서남지방교회여성연합회 공동 주최 제26회 성경세미나가 2월 11일(화)~12일(수), 후쿠오카 교회에서 개최되었다.

개회예배에서는 임명기목사(福岡教会)가 “그 어머니의 이름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강사로는 한국에서 최소영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양성평등위원회 사무국장,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성폭력대책위원회 서기)를 초청해 75명이 참가했다.

첫째 날은 <여성의 경험에서 성경 다시 읽기. 마르다와 마리아, 초월과 연대>라는 제목으로 세미나가 진행되었고, 이후 3명의 패널을 세워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후 서남여성회의 사랑이 넘치는 맛있는 만찬을 나누고, 5개 지방회 여성회의 기도제목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 지방회별 친목회를 통해 눈물과 웃음이 넘치는 첫날 일정을 마쳤으며, 둘째 날은 <비관적인 성경 읽기-여성에게 대한 폭력 넘기>라는 제목으로 세미나가 진행되었고, 그룹별로 포스트잇에 각자의 의견을 적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며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폐회예배는 조은주목사(宇部教会)의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라는 제목의 설교로 이틀간의 세미나를 감사함으로 마칠 수 있었다.

2월의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자매들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다. 앞으로 교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보고 : 이호자 교육국장(小倉教会))



## 5 地方会の定期総会案内

## &lt;関東地方会 第76回 定期総会&gt;

- ・日時: 4月29日(火) 11:00
- ・場所: 東京希望キリスト教会  
東京都荒川区東日暮里3-31-16 TEL 03-5615-0153

## &lt;中部地方会 第62回 定期総会&gt;

- ・日時: 5月5日(月) 11:30
- ・場所: 長野教会  
長野市中御所町4-3-1 TEL 026-226-0830

## &lt;関西地方会 第76回 定期総会&gt;

- ・日時: 5月6日(火) 10:00
- ・場所: 平野教会  
八尾市竹濑西5-18 TEL 06-6709-0789

## &lt;西部地方会 第41回 定期総会&gt;

- ・日時: 4月29日(火) 10:30
- ・場所: 川西教会  
川西市絹延町2-23 TEL 072-759-2752

## &lt;西南地方会 第75回 定期総会&gt;

- ・日時: 4月29日(火) 11:00
- ・場所: 福岡教会  
福岡市博多区千代5-11-48 TEL 092-641-9551

## 관동여성회

제73회 정기대회 개최  
1일 연수회도 동시에 열어

관동지방교회여성연합회 제73회 정기대회가 3월 20일(목) 동경 중앙교회에서 10교회의 대의원 26명중 출석21명, 위임4명, 결석1명으로 개최되었다.

1부 개회예배는 김신우목사(동경중앙교회)가 <여인들의 헌신>(누가복음 8:1-3)이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었고, 이어서 박은주목사(샘물교회)의 사식으로 성찬식이 거행되었다. 김신우목사의 축도로 개회예배를 마쳤다.

회의는 각부보고, 각교회 여성회의 전년도 활동보고, 회계보고, 예산안 심의 등으로 진행되고 승인되었다.

올해는 임원선거가 없기 때문에 2부는 1일연수회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강사는 김근식목사(한사랑교회)로, 제목은 <일본 선교의 어제와 오늘>이었다.

대의원을 비롯해 1일연수회 참가자는 35명이었다.

(보고 : 천말선)



## 관서여성회

제72회 정기대회 개최  
창립70주년 기념식도 동시에 열어

2025년 3월22일(토) 오사카 교회에서 관서지방교회 여성연합회 창립70주년 기념식 및 제72회 정기대회가 개최되었다.

개회예배에는 박영자목사(豊中第一復興教会)로부터 <자기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출20:2)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들었고 그 후 배정애목사(枚岡教会)의 사식으로 성찬식이 진행되었다. 개회예배에 이어 김인희 회장의 사회로 관서여성회 창립 70주년 기념식이 거행되었다. 기념식에서는 회장 인사, 관서여성회 위원과 역대 회장의 특별찬양 후, 김지중 '색동의 집' 이사장, 박영자 목사, 송복희 전국여성회 회장, 양영우 총회장(書面)의 축사가 있었다. 창립60주년부터 70주년까지 10년간의 관서여성회 활동을 기록한 동영상 상영과 기념식 참가자 77명의 단체사진 촬영이 있는 후 기념식을 마쳤다.

점심식사 후의 정기대회는 12교회 43명의 대의원 중 39명 출석, 방청9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인희 회장을 의장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위원개선에서는 유수미(京都南部教会) 집사가 신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그 외의 각종 보고와 결산, 2025년도 예산안 등도 모두 승인받았다. 폐회예배에서는 배정애 목사의 “므나의 비유”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었다. 관서여성회 제70주년 기념식과 창립72회 정기대회가 주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린다. 신위원은 다음과 같다.

- ・회장: 유수미(京都南部) ・부회장: 전사나에(大阪北部)
- ・서기: 강지선(大阪) ・부서기: 천말선(京都)
- ・회계: 신정자(豊中第一復興) ・부회계: 고경현(大阪)

(보고 : 천말선)



새 회장에 선출된 유수미집사  
(京都南部教会)



## 2025년 제39회 <외국인 주민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기독교 집회 선언

우리 <외국인 주민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기독교 연락 협의회>(외기협)는 2025년 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제39회 전국 협의회를 재일한국기독교교회관(KCC)에서 개최했습니다. <재일 코리안, 이민자, 난민과 함께 살아가는 교회>라는 주제로, 각 지역 외기련 및 외기협 회원 교단, 단체의 대표자 52명이 참석하여 <외국인 주민 기본법> <인종 차별 철폐 기본법> <난민 보호법>의 실현과 재일 코리안, 이민자, 난민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 사회 형성을 위해, 재일 코리안과 이주자의 역사와 경험을 들으며, 지문 거부로 시작된 외기협 운동 39년의 발자취와 성과를 확인하고, 교회 및 시민 사회의 과제를 담당할 새로운 선교 플랫폼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먼저, 외국인 주민이 5명 중 1명 이상인 도시인 大阪市 生野区에서, 다문화 공생의 지역만들기 실천을 배웠습니다. 어린 이들을 통해 일본 사회의 과제를 깨닫고 고민하며 민족 보육에 힘쓰고 있는 지역의 여러 보육원들. 누구나 살기 쉬운, 누구도 버려지지 않는 글로벌 타운의 중심으로, 학습 지원 교실 <DO-YA> 운영 및 <生野 만국 야시장> 개최 등을 실천하는 <NPO 법인 IKUNO · 다문화 플랫폼>. 지역, 기업, 대학 등과 협력하며, 지역 전체가 공생 사회를 실현해 가고자 하는 열의가 전해졌습니다.

京都市 宇治市の 우토로 지역의 역사에서는, 차별과 분단을 극복하는 힘과 희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토로 평화 기념관>에는 차별과 편견에 시달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존엄성을 호소한 재일 코리안들과, 그 문제를 자기 과제로 삼고 동참한 일본 사람들의 공동 작업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차별과 분단을 넘어서서 서로 연결되는 기쁨과 함께 사는 것의 아름다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재일대한기독교회는 재일 코리안으로서 민족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이 세상에서 지금도 살아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속이 생의 모든 영역에서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선교 이해로 나아갔습니다. 또한 재일 코리안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의 열정에 이끌려, 다른 민족과 다문화 공생 실현과 모든 존엄성이 존중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독교가 세계에 변화를 일으킬 책임을 지고 있다는 선교 이해 아래, 교회 전체에서 외국인등록법 전면 개정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억압하는 쪽도 함께 해방되는 것을 일본 사회에 호소하며, 에큐메니컬한 연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외기협 운동도 이 호소에 응답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넓은 연대의 에너지를 통해 지문 날인 제도의 전면 폐지를 쟁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경의 재해석을 통해 난민과 이주자 지원에서, 피지원자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의사(擬似)가정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해 여성을 자원으로 보는 가부장제의 폭압(귀화)을 요구하는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외기협은 내년에 4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1980년대 초반 본격화된 재일 코리안, 그리고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주민들의 지문 날인 거부 운동은 각지 외기련의 발족, 더 나아가 1987년 외기협 결성으로 이어지며, 그 중 하나의 성과는 2000년의 지문 제도 전면 폐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차별과 관리에 반대하는 개개인의 결단이, 일본, 한국, 재일 교회에서의 선교 과제가 되었고, 네트워크 형성을 낳았습니다.

그 후 그 시각은 글로벌화 속에서 증가하는 이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로 이동했습니다. 다양한 국제인권조약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으며 작성된 <외국인 주민 기본법> 제정이 인권을 지키고, 다민족 · 다문화 공생 사회를 만드는 근본적인 토대가 된다는 비전이 외기협 제2기의 핵심입니다.

지방 곳곳에 흩어져 있는 외국인 주민의 삶에 대해서는, 혐오 발언, 혐오 범죄, 입법 난민법 개악(2023년·2024년)뿐만 아니라 <언어> <제도>, <취업>의 세 가지 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각자가 진정으로 사회의 일원이 되어가면서, 올바른 역사 인식, 인권 감각, 존엄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를 통해 외기협은 외국인 주민과 <함께 살고, 함께 살아가는> 관계를 구축하는 과제가, 다수자인 일본인 및 일본 사회의 역사적이고 현재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각지 외기련, 회원 교단 및 단체들의 수평적 관계 속에서 각자의 경험과 실천을 공유하며, 운동의 길을 열어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외기협은 제3기의 새로운 선교 플랫폼의 방향성을 검토하고, 2026년에는 새로운 체제와 전개를 제안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재일 대한기독교회 오사카 교회를 장소로 제39회 <외국인 주민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기독교 모임을 개최하며, 현황의 과제를 확인하고, 공동 해방을 위한 새로운 복음 선교의 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합니다.

2025년 1월 24일

제39회 <외국인 주민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기독교 모임 참가자 일동  
외국인 주민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기독교 연락 협의회

豊かな味、豊かな心。



妻家房

SAIKABO

代表取締役 吳永錫 (東京希望キリスト教会 長老)

四谷本店：東京都新宿区四谷3-10-25 Tel. 03-3354-0100

讃頌歌委員会より「子どもさんびか」が  
発行されています。

主の祈り・使徒信条・交読文・十戒  
集録 (いずれも韓国語・日本語)

一冊1,000円

お問い合わせは総会事務局へ

電話 03-3202-5398

